

# 자연주의 교육사상가들에게서 나타나는 지리적 관심\*

- 지리학 및 지리교육에 미친 영향 -

서 태 열\*\*

## Geographical Concern of Naturalists in the Philosophy of Education\*: Its Influence on Geography and Geography Education

Tae-Yeol Seo\*\*

**요약** : 이 글은 자연주의 교육사조의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Comenius, Rousseau, Pestalozzi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의 지리에 대한 관심과 지리교육 방법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연주의 교육사조가 지리교육 및 지리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Comenius의 감각적 사실주의에서 출발하는 자연주의 교육사조는 합자연의 교육원리와 방법을 제시하였음은 물론, 인간중심교육과 보통교육을 지향하면서 근대교육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리는 일찍부터 자연주의 교육사상가들이 제시하는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교과로서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받으면서 그 존립근거를 확보하였다. 또한 자연주의 교육사조는 직접관찰접근(look-and-see approach)에 의해 감각과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노력중심의 지리교육, 직접적 경험의 장소이자 생활환경이 되는 향토지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리교육, 현장답사중심의 실물위주 지리교육의 아이디어들을 제시하여 지리교수방법에서도 영향을 미쳤으며, 자연주의 교육사상가들은 지리학자 칼 리터에게 지리학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

**주요어** : 자연주의, 감각과 경험, 직접관찰 접근, 향토지리, 실물위주 지리교육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illuminate how the Naturalists' concern on geography and geography education, mainly in Comenius, Rousseau, Pestalozzi who have played key roles in the development of Naturalism, has developed and how the Naturalism has influenced on the development of geography and geography education. Starting from sensual realism, the Naturalism suggested the educational principle and methods adjusting to the Nature well as exercised grea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modern school education toward popular common education. The geography took the firm position as subject in the curriculum of the Naturalists and achieved the rationale of existence as subject in curriculum with utility to expand human experience, thanks to Naturalists. The Naturalists developed several ideas on geography teaching method such as labouring activity-centered geography teaching based on strengthening sense and experience by 'look-and-see' approach, local geography-centered geography teaching with stress the local area as the focus of direct experience and living environment, and the real thing-centered geography teaching by fieldwork. Moreover, The Naturalists had an great effect on the geographer, Karl Ritter in terms of methodology of geography.

**Key Words** : Naturalism, sense and experience, 'look-and-see' approach, local geography, real thing-centered geography teaching.

### 1. 서론

교과의 발달 역사를 파악하는 것은 교과 존립의

타당성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과와 본질을 이해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리교육에 있어서도 지리 교과와 발달사

\* 본 논문은 2002년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University), tyseo@korea.ac.kr

를 규명하는 것은 교과로서 지리의 타당성과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존의 서양 지리교육의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를 보면, 지리학사 연구의 일부로서 다루어지거나 지리교육사에 대한 연구로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지리학사에 대한 연구에서는 Bowen(1981), Glacken(1967), Hartshome(1939), Martin and James (1993) 등의 연구처럼 지리학의 발달과 관련되는 일부의 지리교육적 저작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지리교육사에 대한 연구에서는 영국의 Marsden(1980)의 연구나 미국의 Muessig(1987)의 연구처럼 주로 특정한 국가에 한정하여 인물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지리교육의 발달과정을 지리학의 발달과정 뿐만아니라 교육학의 발달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지리 교과와 지리학이 교육사상이나 교육제도의 틀속에서 어떻게 취급되어 왔는 지, 그리고 특정한 교육사상속에서 어떻게 교과로서 규정되었는 지를 밝히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독립교과로서 지리의 위상이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유럽에서도 유럽 각국에서의 지리학의 발달과정에만 관심을 기울였으며, 근대지리학이 형성될 때까지 지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지를 당시 유럽의 사상사 및 교육사상사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연구가 거의 없다. 최근에서야 Mahony(1988)에 의해 수많은 사회사상가, 철학자, 교육학자들이 지리교육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사상적 영향을 주었는 지에 대한 가장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편, 근대지리학을 성립시킨 리터(Carl Ritter)가 루소(J. J. Rousseau)의 사상을 계승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페스탈로치(H. Pestalozzi)의 학교를 방문하여 사상적으로 깊은 영향을 받았는데, 루소나 페스탈로치 모두 그들의 교육사상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자연주의 교육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대교육의 창시자인 코메니우스(J. A. Comenius)는 루소나 페스탈로치에 앞서 자연주의 교육사조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 인물로서 세계최초의 시청각 교재인 『세계도해』와 후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교육학 저서인 『대교수학』에서 그의 지리적 관심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서구의 교육사조 중에서 지리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교과로서 지리의 위상이 형성되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는

교육사조는 자연주의 교육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코메니우스, 루소, 페스탈로치 등으로 이어지는 자연주의 교육사조에서 지리가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페스탈로치의 국민교육 사상이 유럽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근대 대중교육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렇게 형성된 서양 근대학교에서는 자연주의 교육사조가 가졌던 지리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에서 지리 교과가 확고히 자리를 잡았으며, 오늘날에도 지리가 독립적인 교과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주의 교육사조는 유럽적인 지리교육 전통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연주의 교육사조와 지리학과의 관계에 대해 국내외에서의 조명여거의 없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자연주의 교육사조에 대한 논의는 교육학적 관심으로서 아직 교과발달사와 연결되는 교과교육적 관심으로 발전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및 미국의 지리교육 발달사에 대한 연구가 주로 해당국가의 지리교육의 발달과정을 다루는데 머물러 국가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유럽 전체적인 스케일에서 지리교육의 발달과정을 다루는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대륙적인 스케일이나 세계적인 스케일의 교육사상사적 측면에서 지리 교과교육의 발달과정을 다루지 못한 것은 그동안 서양의 지리교육사 연구가 주요한 지리교육자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며, 또한 넓은 틀에서 볼 때 교육사상의 발전과정에 상응하는 지리 교과의 내적 논리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자연주의 교육사조의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Comenius, Rousseau, Pestalozzi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에 있어서 지리적 관심과 지리교육 방법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나타나며, 이러한 자연주의 교육사조가 지리교육 및 지리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이들이 교육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들에게 교과로서 지리가 어떻게 비추어졌는 지를 밝히는 것은, 교육적 입장에서 지리학과 교육학의 발전이 학교 지리에 어떻게 투영되었는

지를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지리교육사, 지리학사, 그리고 교육사에 모두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 2. 자연주의 교육사상가들의 지리에 대한 관심

### 1) 자연주의 교육사조, 교육사상가 그리고 지리

자연주의 교육사조가 발달하였던 시기를 지리학의 발달과정에서 보면, 지리학이 점점 중세의 미몽에서 깨어나 고대의 지리학을 복원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시기에서 시작하여, Varenius에 의해 지리학의 체계가 잡혀지고 근대지리학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걸쳐 발달하였다.

자연주의 교육사상은 18세기의 가장 유력했던 교육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손인수, 김동구, 1988, 91), 그 사상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을 모두 자연의 원리에서 찾았으며 자연에 따르는 교육이 인간을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고 덕스럽게 만든다고 본다. 즉 자연주의는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기목적적 삶을 살아가는 자연인을 육성한다는 교육목적 및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지식체계를 거부하고 아동의 천성에서 나오는 흥미와 생활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며, 감각적 실학주의의 영향을 받아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실물교육과 직관교육의 방법을 사용한다(박의수 외, 1997, 222).

자연주의 교육사상가들에게는 자연이란 항상 진리와 인간의 경험의 원천인데, 이들은 과학적 방법으로 자연을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 이로부터 인간과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자연의 법칙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몽주의 철학과 교육적 자연주의자들은 구체제의 질서에 대하여 혁명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박의수 외, 1997, 296).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서구의 사회사상사적인 측면에서도 루트 등에 의해 대표되는 낭만적 자연주의는 서구 근대교육의 새로운 주류를 형성하면서 현대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주영흠, 2003, 15).

그런데,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모체는 17세기의 감각적 사실주의인데, 외부의 자연에 순종하는 주

관적 자연주의 교육을 주장하는 Comenius나 Ratke에서 시작하였다(손인수, 김동구, 1988, 91). 이후 자연주의 교육사상은 자연 속에서 자연의 심성의 교육을 주장하는 루소로 발전하였고, 초자연적인 신의 존재를 믿었지만 교육방법에서 루소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페스탈로치에 의해 크게 발달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다윈 진화론을 지식사회에 적용하여 고도의 도덕적 체계를 강조한 Spencer 등에 까지 이른다(박의수 외, 1997, 290).

따라서 자연주의 교육사상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코메니우스, 루소, 페스탈로치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의 교육사상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대교육의 창시자라고 불리워지는 코메니우스(Johann Amos Comenius: 1592-1670)는 체코의 교육자로서 자연중심적 교육을 제시하였던 대표적인 자연주의 교육사상가이며 17세기 실학적 사실주의 교육사상가이다<sup>1)</sup>. 그는 종래의 철학과는 다른 자신의 새로운 철학 즉 범지학(Pansophia)를 통하여 기존의 교육을 개혁할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교육과정, 교수법, 교수자료들을 창안하고 개발하여 후대의 교육사상가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강선보, 2002, 1).

그의 교육사상은 자연주의 교육사상, 사실주의, 범교육사상으로 크게 세가지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코메니우스는 인간과 자연 사이에는 동일한 성장과정과 병행의 관계성이 있다는 병행이론을 발전시켰으며(이숙중, 1996), 인간의 모든 활동을 자연의 전형적 구조와 원리에 근거하여 해석하여 모든 교육방법의 원리를 자연현상으로부터 도출하거나 유추하는 등 자연주의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였다.<sup>2)</sup>

그리고 그는 감각적 혹은 자연주의적 사실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져 왔다. 그는 Bacon의 영향으로 자연사물들의 직접적인 관찰에 의한 감각적 지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부세계와 인간의 내면세계의 유기적 관계에 의한 새로운 인식론을 정립하였고, 감각의 인상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식과 함께 사물들의 감각적 표척이나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이숙중, 1996, 127-129).

또한 코메니우스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모든 방법으로'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 아래, 모든 사람들을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삼

고(강선보, 2002), 그들에게 지식의 원천이 되는 모든 사물을 가르치며, 모든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교육사상(Pampaedia)을 제시하였다. 그가 내세운 범지학(Pansophia)<sup>3)</sup>이라는 철학에 근거하는 범교육사상은 인간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인간중심적 교육과 이것을 위해 자연의 모든 사물을 필수불가결한 교육의 자료로서 제공되어야 하는 자연중심적 교육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전달하는 가장 보편적이며 자연스러운 방법을 활용하여야 하는 우주적 교육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이숙중, 1996, 360).

코메니우스의 범교육사상과 범지학은 사상적으로 보면 Alsted의 영향을 받아 백과전서파와 연결되어 있는데, 단편적으로 나열되고 분절된 지식보다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체계화되고 종합적인 지식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오춘희, 1988). 그의 노력은 지식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종합적 지식체계를 이룩하려는 근대지리학과 사상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루소는 『사회계약론』, 『에밀』에서 사회는 악하고 자연은 선하므로 인간은 선천적으로 부여된 자연적 성정을 자유롭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루소에 의하면 교육의 과제는 자연의 길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멀리하도록 하는 일이므로(오인택, 1998, 219), 그는 “자연에 관찰하라. 그리고 자연이 제시하는 길을 따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아동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단계의 특징에 따라 합당한 교육 즉 아동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관습과 인습의 틀에 집어넣은 교육을 비판하였다.

루소의 교육사상은 자연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데(손인수, 김동구, 1988: 차석기, 1991, 393-395), 그의 교육방법은 아동 본위의 주관적 자연주의, 자연전개의 법칙의 적용, 실물을 통한 교육 등으로 정리된다. 이를 토대로 루소는 현대의 아동중심의 자유교육을 만들어 생활교육사상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저작인 에밀에서 “과학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고 직접 하는 것이다”는 주장을 하여 페스탈로치의 직관주의, 그리고 작업주의 즉 노작교육의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다(차석기, 1991, 398-399).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은 그의 교육소설인 『에밀』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이 책을 통하여 모든 인식들은 학습자 자신과 밀접하게, 다시 말하면 체험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학습자에 의하여 공감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인식의 내용을 확대하고 심화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자연주의 교육원리를 제시하였다(오인택, 1998, 222). 따라서 그는 자신의 감각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그리고 자발적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를 도야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스위스의 교육학자인 페스탈로치(1746-1827)는 『탐구: 인류의 발달에 있어서 자연 과정에 대한 나의 탐구』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합 자연의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주의 교육사조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페스탈로치의 실물학습은 감각적 경험을 활용한 대표적 자연주의 학습방법이었고(박의수 외, 1993, 297), 그는 교육방법으로서 합자연의 교육원리를 실천하였다.

페스탈로치는 자연을 감각으로만 보지 않고 정신으로만 보지도 않았으며 또한 양자(감각과 정신)의 산술적 합산이 아닌 정신과 감각의 이중적 구성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그는 도덕 또는 정신을 거부하면서 인간을 감성으로만 향하게 하는 것이나, 감성을 배척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과 정신만을 향하게 하는 것도 배척하였다. 감각과 정신을 함께 내포하는 순박한 인간본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자연에 일치하는 교육 즉 합자연 교육이라고 보았으며, 교육방법은 자연의 필연적인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박의수 외 3인, 240). 이러한 페스탈로치의 교육사상 및 자연주의 교육사상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직관이었는데(김재만, 1983), 그의 직관은 단순히 외계를 모사한다는 코메니우스의 직관론과 달리 수용력과 함께 자발적인 구성력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표적인 자연주의 교육사상가들은 자연에 일치하는 교육을 추구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자연법칙의 발견, 형성, 응용을 촉구하고 인간발달이 자연적 법칙에 일치하는 교육을 추구하며, 모든 인위적인 것에 반대하여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손인수, 김동구, 1988, 91-92).

코메니우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연에 따르는

표 1. 코메니우스, 루소, 페스탈로치의 교육 프로그램과 지리

사상가	코메니우스	루소	페스탈로치
유아기	(0-6세) 형이상학, 자연학, 광학, 천문학, 지리학, 연대학, 역사, 산술, 기하학, 통계학, 기계학, 변증법, 문법, 수사학, 시, 음악, 가정 경제, 정치학, 도덕 혹은 윤리, 종교와 신앙	(0-2세) 신체발육중심 건강교육	신앙공동체적 생활, 미술, 음악, 수, 형, 어, 조형, 지리, 체육
아동기	(7-12세) 모국어, 모국어 문법, 산술, 기하, 음악, 교리문답, 도덕, 경제학과 정치학, 역사, 지리, 기계공학	· 감각교육, 실제생활교육 · 문장, 지리, 역사, 어학을 가르치지 말 것	(종교, 독어, 불어, 라틴어, 그리스어, 쓰기, 문법, 역사, 지리, 산수, 기하, 미술, 음악)
소년기	(13-18세) 문법학, 변증법, 수사학, 산술학, 기하학, 음악, 천문학, 자연과학, 지리학, 연대학, 역사학, 윤리학	· 지리, 우주학, 물리학, 박물학, 『로빈슨크루소』 읽기, 천문, 기하, 문리학 · 생활에 유용한 지식교육	(8-15세) 종교, 독어, 불어, 라틴어, 그리스어, 쓰기, 문법, 역사, 지리, 산수, 기하, 미술, 음악

\* 출처: Comenius, J. A.(정확실 역), 1991; Rousseau, J. J.(민희식 역), 1991; Pestalozzi, H.(김정환 역), 2000.

교육방법은 코메니우스 이래 루소, 페스탈로치 등에 계승되면서 인간주의적 교육관을 형성하여(박의수 외, 1993, 211), 어린이의 본성을 이해하고 교수법에 있어서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춘 아동중심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들이 제시한 교육사상과 교육과정은 귀족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근대교육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들의 교육사상과 교육과정에서 이미 지리는 교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며 근대교육에서도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이들 자연주의 교육사상가들은 그들이 살았던 시기의 시간적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표 1과 같이 그들이 제시한 교육과정 속에서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지리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은 지리교육사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 2) 코메니우스에서 나타나는 지리적 관심

### (1) 코메니우스의 교육과정과 지리 교과

근대교육의 창시자인 코메니우스는 교육과 관련하여 교수법, 학교조직, 교육제도의 모든 면을 다루는 방대한 저술을 하였는데, 그의 교육사상을 집

대성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 저술은 『대교수학』이며, 이러한 그의 교육사상을 펼쳐놓은 가장 대표적인 저술이 『세계도해』라는 교과서이다. 이들 대표적인 교육적 저술에서 코메니우스는 일정한 비중으로 지리적 내용들을 포함하여 다루었다.

그리고 그는 언어학습을 위한 교과서를 연령단계에 맞추어 앞뜰(vestibulum), 정문(Janua), 궁전(Palatium), 보고(Thesaurus)이라는 4종류를 제시하였는데(Comenius, 1992), 『라틴어 보고 Thesaurus Latinitatis』라는 교과서에서 지리학을 비롯하여 물리학, 윤리학, 의학, 정치학, 신학, 역사, 웅변학, 그리고 시 분야에서 고대 저자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과 다양한 담화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그의 지리적 관심은 지도에까지 이른다. 코메니우스가 지도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지도를 통한 지식의 조망이 유용한 것이었기 때문인데(Comenius, 1987, 303), 그가 제작한 고향인 체코남부의 Moravia 지방 지도(Sebor, 1972, 90; Bowen, 1981, 34)는 어느 정도 심볼의 선택에서 정확성을 보이며 자료나 글자들로 복잡하지 않는 그림지도였다고 한다<sup>4)</sup>. 16세기 지도는 세계에 대한 교회적 가르침을 보여주는 계획을 지니는 다이어그램식으로 된 Mapped mundi 즉 T-O지도와, 항해를 위해

그러진 보다 수리적으로 정밀한 지도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Bowen, 1981, 34), 그가 신부였기에 코메니우스의 지도는 Mappa mundi쪽에 가까운 지도였다.

그런데, 근대 교육의 창시자인 코메니우스는 지리학을 어떤 지식으로 보았으며, 그에게 지리 교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코메니우스에게 지리학은 탐구할 가치를 지닌 범지학의 한 부분을 이루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었다.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사물들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모든 지식의 분야들은 하느님의 지혜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이숙중, 1996, 222), 그의 범지학 사상에 따라 인간이 탐구하며 배워야 할 지식의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그는 실제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지식의 분야를 『대교수학』에서 “형이상학, 자연학, 광학, 천문학, 지리학, 연대학, 역사, 산술, 기하학, 통계학, 기계학, 변증법, 문법, 수사학, 시, 음악, 가정경제, 정치학, 도덕 혹은 윤리, 종교와 신앙”의 20가지로 제시하였는데(Comenius, 1987, 278-282), 지리학은 그 중의 하나로써 포함되었다.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에 비추어 보면, 그가 20가지의 지식의 분야 속에 지리학을 포함하고 그의 범지학적 교육과정 속에 지리를 교과로서 삽입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유용성의 측면이다. 지리는 “진실로 유용한 교과만을 가르쳐야 한다”(Comenius, 1987, 154)는 코메니우스의 교과관에 적합하였다는 점이다. 대학수준에서 지리에 대한 그의 언급을 보면(Comenius, 1987, 303), 그는 지리적 지식은 특히 지도를 통하여 전체 지식을 종합적으로 생생하게 조망하는데 매우 유리하여 다른 학문에 비해 유용한 것으로 간주하였다<sup>5)</sup>.

이러한 관점에서 코메니우스는 포괄적이고 백과사전적인 범지학적 교육과정(Pansophic curriculum)을 제시하면서, 그가 백과사전적 관심과 신학적인 관심을 동시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유용성에 따라 3학(trivium) 4과(quadrium)의 중세 7과 외에 물리, 지리, 역사, 도덕, 종교를 포함시켰다(강선보, 2002, 7).

둘째는 그는 학교에서 가르칠 지식은 학습자에게 유용한 것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것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인간생활에서의 실재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코메니우스는 지식의 일반성에 주목하여 이러한 것을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하였으며, 모든 이성적 인간의 이해범주에 속한다고 보았다(강선보, 2002, 6). 따라서 지리적 지식이 코메니우스의 관심을 끌어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건전한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는 지식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코메니우스는 모든 학문 중에서 무엇보다 인간생활의 실제적이며 건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과학의 연구를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자연과학은 모든 사물의 내적 구조와 철저한 지식의 가치가 될 수 있으며 모든 형태의 지식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학교의 교과과정에 물리학, 천문학, 지리학, 기하학, 산술, 수학과 같은 학문을 포함시켜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이숙중, 1996, 223).

셋째는 지리는 코메니우스의 범지학적 교육과정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 코메니우스의 교육과정에서의 목표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며,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모든 교과를 가르쳐야 한다고 보았다(강선보, 2002, 7). 또한 그에 따르면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1) 부분이나 조각이 아니라 완전하고 전체적인 것, 2) 피상적이고 현혹적인 것이 아니라 기초가 탄탄하고 진실된 것, 3) 가혹하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평온해서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Murphy, 1995, 121; 강선보, 2002, 8). 따라서 코메니우스에 따르면 지리적 지식은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코메니우스는 그의 『대교수학』에서 그의 교육적 이상에 따라 각 발달시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는데, 그의 교육과정에서는 아동기로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일정한 연령 범위 즉 6년 단위로 유아기의 어머니 무릎학교, 아동기(7-12세)의 모국어학교, 청년기의 라틴어학교(13-18), 그리고 대학(19-24세)에서 가르칠 지리 지식에 대해 언급하였다. 각 학교급별로 그가 언급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 무릎학교…지리학의 초보는 우리가 자라나는 고장의 상황에 따라 산, 계곡, 평원, 강, 촌락, 도시 등의 본질을 아는 것이다”(Comenius, 1991, 279).

“모국어학교…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사실 즉 하늘의 궁창, 그 중심에 걸려있는 지구의 구형, 대양의 모양, 강의 흐름, 지구의 주요구분, 구라파의 주요 왕국,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 자신의 조국의 도시, 산, 강 기타 알아두어야 할 것을 학습해야 한다”(Comenius, 1991, 289).

“라틴어학교…지리학자, 즉 지구의 형태를 잘 알고, 대양과 섬들과, 강들과 여러 왕국의 지식을 아는 사람이다”(Comenius, 1991, 294).

“대학…우리는 대학에서 모든 종류의(지식을 다룬) 저자들이 읽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것은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힘든 일이므로, 학자들 즉 언어학자, 철학자, 신학자, 의학자들이 지리학자들과 같은 작업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지리학자들은 지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지방, 여러 왕국, 세계의 여러 구분을 지도로 나타내어, 대양과 땅의 큰 넓이를 작은 축척으로 그려내기 때문에 한 눈에 다 들어오게 만든다. 화가들도 역시 시골과 도시, 집, 사람들을 그 본래의 크기가 어떠할지라도 정확하고 생생하게 그려낸다”(Comenius, 1991, 303).

위의 내용으로 보아 코메니우스가 생각한 지리학은 대체로 지구의 회전, 지구표면을 경도와 위도 중심으로 설명하여 지구의 속성과 형상을 다루는 Ptolemy의 수학적, 지도학적 지리학적 전통에 따른 ‘Geographia’ 내지 ‘Cosmographia’의 내용을 담고 있음은 물론이고, 자연적 속성과 지역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Strabo의 지역기술적 지리학 전통을 적절히 혼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6)</sup>. 특히 그가 지역을 산, 계곡, 평원, 강, 대양, 섬과 같은 요소별로 기술하는 것은 자연적 속성에 따라 자세히 기술하는 Strabo의 지리학과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모국어학교에서는 코메니우스가 지리학이라는 용어 대신에 우주론 즉 Cosmograph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는 Geography와 Cosmography가 혼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는 당시의 신학자들이 그들의 신학적 관심에 따라 Ptolemy의 지리학이라는 용어를 번역하면서 Geographia 또는 Cosmographia로 혼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며, 신부이자 신학자인 코메니우스 역시도 당시 신학자들의 관례에 따랐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2) 코메니우스의 『세계도해』와 지리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이 가장 철저히 구체화된 작품으로 여겨지는 것이 『세계도해』(Orbis Sensualium Pictus)라는 교과서<sup>7)</sup>인데, 원제목은 “감각세계의 그림”이며 세계 최초의 그림으로 된 교과서이다. 그가 그림이 들어간 교과서를 집필한 것은 단순히 그것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본성에 합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박의수 외, 210, 240). 즉 그는 모든 교육은 아동의 경험에서 출발하고 사물에 대한 직관적 파악 또는 적어도 그림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물에 대해 직접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세계최초의 시청각 교재인 『세계도해』는 1658년 출간 당시부터 ‘그림이 있는 교과서’라고 불리면서 전 유럽의 베스트 셀러로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초판이 발행되고 100년 뒤의 인물인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 이 책을 종종 언급했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책이며(Comenius, 1999, 187), 이후 교육적으로 훌륭한 교과서의 모범이 되었다.

『세계도해』는 150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각 주제에 대한 내용과 그 내용을 담은 그림이 함께 들어있다. 150개의 주제는 언뜻 무질서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과 인간과 신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하는 통일되고 보편적인 지식체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코메니우스의 범지학 사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며(Comenius, 1999, 190), 이를 통해 코메니우스의 범지학적 계획은 백과사전적 단편에서 통일적 인식체계에 이르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도해』 속에는 코메니우스의 범지학적 사상체계와 일치하여 그가 『대교수학』에서 중요성을 인정한 모든 분야의 지식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세계도해에 나오는 150개 주제들은 코메니우스가 모든 지식분야이자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지식으로서 『대교수학』에서 제시한 20가지의 지식 모두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대교수학』에서 제시한 20개의 지식은 각각 7개 내지 8개 정도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지리학의 주제도 7~8개 정도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도해의 150개의 주제 중에서 지리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주제들은 "3.하늘, 5.공기, 6.물, 8.대지, 9.대지의 작물, 11.돌, 12.수목, 13.과일나무, 15.야채, 16.곡식, 17.관목, 45.농경, 46.목축, 50.고기잡이, 63.목수, 67.광산, 82.여행하는 사람, 85.운송, 86.나루터, 103.친구, 107.지구(a), 107.지구(b), 108.유럽, 122.도시, 123.도시의 내부, 126.장사, 137.왕국과 속주, 143.도시포위"에 걸쳐 약 27개 정도로 많다. 이 중에서 코메니우스가 『대교수학』에서 실제로 언급한 지리학의 본질 즉 "산, 계곡, 평원, 강, 촌락, 성, 도시들의 본질을 아는 것"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을 담은 주제들을 보면, "물, 대지, 지구, 유럽, 도시, 도시의 내부, 왕국과 속주"의 7개 주제가 그것들이다.

이러한 지리 관련 주제들의 내용들을 담고있는 페이지들은 다른 주제들처럼 그림지도와 다이어그램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지구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들을 보면 "하늘은 그 한가운데 위치한 지구의 주변을 감싸고 돌아가고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코스몰로지Cosmology(우주론)를 계속 확신시키는 것이었다(Bowen, 1981, 77).

그의 교과서에 진술된 지리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07. 지구"와 "123. 도시의 내부" 두 가지의 주제만 살펴보자.

주제 "107. 지구"를 보면(그림 1<sup>8)</sup>; Comenius, 1999, 128-129), 150개 주제 중에서 유일하게 (a), (b)로 나누어 진술하여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주제인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동반구와 서반구의 2개의 반구로 나누어 기술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주제에서는 경선과 위선에 대해 언급하고 동반구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을 담고, 서반구는 아메리카 대륙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근대지리학의 형성 이후의 지리교과서에서도 지구를 다루는 전형적인 틀이 되었다. 그리고 이 주제에서 지구를 열대, 온대, 한대로 나누고 있어 그리이스 시대의 지리학을 계승하고 있다. 대륙의 구분은 1대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2대륙(아메리카), 3대륙(남쪽의 대륙)으로 구분하였는데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것은 당시 지구에 관한 지식의 한계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123. 도시의 내부" 주제를 보면<sup>9)</sup>, 당시의 유럽의 도시 즉 성곽도시의 구조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도시의 중심, 성벽주변, 그밖의 주변



그림 1. '지구(b)'  
출처: Bowen, 1981, 78.

으로 나누어 도시내부의 시설물의 공간배치에 따라 기술함으로써 감각 지각에 유리하도록 내용구성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내용들은 도시 내 생활을 한눈에 유추하게 해주며, 도시와 하천과의 관계까지 포함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도시 내부 공간구조를 시각적으로 이해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항목 뿐만아니라 "도시"주제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도시와 근교의 공간배열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전체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기술 내용은 오늘날의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사용가능한 정도로 도시에 대한 간명한 기술이 돋보인다.

### (3) 코메니우스의 지리학적 지식의 배경

과학혁명이 17세기에 힘을 마련하면서, 당시에 지리는 처음부터 다소 비정상적인 입장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당대의 지도적인 사상가들로부터 심각한 주의를 끌지 못했다. 지리학의 전통적인 주제가 새로운 과학의 이론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여, 이 교과를 계속 가르쳤던 사람들은, Bacon식의 학교에서도 Descartes식



의 학교 어디에서도 생기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분명한 프로그램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Bowen, 1981, 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메니우스가 교육 프로그램에 지리학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 저명한 교육학자가 지리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었을까?

첫째,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코메니우스의 지리적 관심은 백과전서주의의 영향에서 나온 것이며, 르네상스 시기의 고전의 복귀라는 인문주의의 영향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코메니우스는 사상적으로 Bacon과 백과전서파인 Alsted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는데(Mahony, 1988, 16; 이숙중, 1996, 104, 114-119), 지식의 체계에 있어서는 Bacon의 영향을 받기보다 오히려 백과전서파인 Alsted의 사상의 영향으로 지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과 지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모든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범지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다양한 지식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코메니우스가 가진 언어교수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시작된 고전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고대 그리이스의 지리학 관련 문헌을 많이 접함으로써 지리학에 대해 보다 친숙해졌기 때문이다. 코메니우스는 인간의 재발견에 강조점을 두는 에라스무스에서 시작되는 인문주의의 연장선에서 고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라틴어 교육에서 고대의 그리이스의 여러 가지 문헌과 함께 지리적 저작들을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둘째, 지리학의 학문적 상황을 통해 코메니우스 시대의 지리학을 복원하면, 당시의 지리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코메니우스는 중세지리학과 근대지리학의 중간에 위치하는 17세기 중엽의 '지리학적 전환기'에 해당하는 인물로서, 당시 대표적인 지리학자로는 독일의 Philip Cluverius(1580-1622, 이하 클루베리우스), Bartholomew Keckerman(이하 케커만), Bernhard Varenius(1622-1650, 이하 바레니우스) 등이 있다.

코메니우스는 바레니우스와는 그들간의 나이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

다(Sebor, 1972, 90). 그들 모두가 Holland의 동일한 학술회에 속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메니우스의 저작에는 일반지리학과 특수지리학으로 나눈 바레니우스의 개념의 흔적이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코메니우스가 신학자이자 신부로서 라틴어를 구사하는 당대의 지식층을 끌어가던 계층이었으며, 1613년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수업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클루베리우스와 케커만과는 그들의 라틴어로 집필된 지리서적을 통해 지리학에 접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지리상의 발견기부터 신부들은 그들의 지리적 지식을 신학적 관심에서 담아냈다고간주하는 *Cosmography*류<sup>10)</sup>의 지리적 저서에 익숙해있었으며, 또한 신부였던 Münster의 *Cosmography*<sup>11)</sup>가 무려 100년동안 44판이나 거듭되어 출판되고 6개 언어로 번역될 정도 영향력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대의 활발한 활동을 하였던 클루베리우스나 케커만같은 지리학자들의 저작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을 것이다. 체코에 인접한 독일 지리학자 클루베리우스의 지리학 저서<sup>12)</sup>가 식자층에 회자될 정도로 유명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케커만은 라틴어로 된 “모든 수학의 간단한 체계: 기하학, 광학, 천문학, 그리고 지리학”(1617년에 출판)을 출판하여 지리학에 대한 보다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함께 취급하고 있는 네 개의 학문의 나열된 순서는 코메니우스가 『대교수학』에서 지식의 분야를 제시하는 순서와 거의 일치하는 유사점을 보이므로 그의 책들 또한 참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밖에도 Keckerman은 여러 가지의 교과서를 저술하였는데, 라틴어로 “신학의 구조”(1602), “논리학의 체계”(1603), “윤리학의 구조(1607)”, “일반 그리고 특수 수사학의 체계(1608)” 뿐만아니라 1617년에는 개설서인 “지리학의 체계”를 두 권의 책으로 재출판하였으므로(Bowen, 1981, 71), 범지학의 성립과 학문의 체계화에 관심이 많았던 코메니우스가 접하기 쉬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보면, 코메니우스는 바레니우스와 비교해 볼 때 전문적인 지리학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지리적 성취는 인과성에 강조를 두고 모든 교육을 위한 배경으로서 필요로 하는 지구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데 있었다(Sebor, 1972, 92).

### 3) 루소에 나타나는 지리적 관심

#### (1) 루소의 『에밀』에 나타난 지리적 관심

루소는 그의 교육소설 『에밀』에서 이성의 시기인 12세에서 15세까지의 소년기에는 이성적 활동은 시작되고 지적 호기심이 학문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므로, 에밀의 학습에서 지리 학습을 포함하여 이 시기부터 지리학을 가르칠 것을 권유한다<sup>13)</sup>.

그러나 지리학,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을 책과 측정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관찰과 경험, 발견과 실험을 통하여 공부하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오인탁, 1998, 231). 즉 루소는 감각을 통한 인간의 직접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이성과 행위를 연결시키고 통합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는 루소가 경험과 과학적 방법이 지식의 주된 원천이 된다는 사실주의(혹은 실재주의: realism) 교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주영흠, 2003, 49-50).

루소는 그의 교육철학에 따라 지리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실험과 실물중심의 지리교육, 조작중심의 지리교육, 직접관찰에 의한 향토지리, 호기심과 자발성에 바탕한 지리교육, 현장답사와 경험중심의 지리학습을 제시하였다.

먼저 루소는 실험과 실물중심의 지리교육을 강조하였는데, 루소는 Aristoteles에게 있어서처럼 지구가 바로 지리학자의 실험실이라고 지적하고 실물이 아닌 대용물을 쓰는 지리수업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이처럼 루소가 실물대신에 대용물의 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루소에 따르면 “실물을 보일 수 없을 경우 외에는 절대로 실물대신 상징물을 보여주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상징물이 아이의 주의력을 빼앗아가,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사물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이다”(Rousseau, 1991, 215). 이는 루소의 감각과 실물을 중시하는 사실주의의 입장을 잘 보여주며, 자연주의 교육사상가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즉 언어보다 행동중심의 수업을 강조하는, 언어보다 감각을 강조하는 감각적 사실주의 사고와 상통한다.

그리고 루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과목들의 학습과 마찬가지로 지리학습에서도 자신의 감각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자발적 활동 즉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학습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루소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잘 나타난다.

“지도가 머리 속에 들어 있느냐 아니냐는 아무래도 좋은 것으로, 지도가 나타내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도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기술에 관하여 명확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당신의 제자의 학식과 내 제자의 무지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 주기 바란다. 당신의 학생은 지도를 배우지만 나의 학생은 지도를 만든다. 여기서 또 그의 방이 새로운 것으로 장식되게 된다.

나의 교육의 정신은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료한 관념외에는 아무것도 그의 머리 속에 넣어 주지 않는 것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Rousseau, 1991, 216)

“자신의 지도, 매우 간단한 지도를 만들게 하라. 처음에는 오직 두 개의 장소만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른 것들은 그들간의 거리와 위치를 헤아릴 수 있을 때, 때때로 첨가될 것이다.”(Rousseau, 1991, 216; Mahony, 1988, 18-19)

또한 이는 “만드는 활동” 중심의 지리교육 즉 조작중심의 지리교육으로 명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이후에 페스탈로치의 지리교육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되는데<sup>14)</sup>, 루소는 직접 경험을 통하여 감각을 익히고 경험한 것을 통하여 지도를 만들므로써 정확하고 명료한 관념을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루소 이후 자연주의 교육사상가나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들에게 조작은 정신적, 도덕적 발달을 가능케하는 인간 형성의 본질적 방법으로 인식된다(김수동, 1997, 77).

루소는 또한 학습에서 이러한 감각과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조작중심의 지리교육 뿐만아니라 분석과 종합을 동시에 사용하는 지리교육을 주장하였는데, 동시에 상반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양자가 서로의 증명으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는(분석과 종합이라는) 양쪽 끝에서 지리에 접근해보고 싶다. 그가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한 학습에서 시작하여 지구의 각 부분을 검토하면서 지구의 공전에 대한 학습과 결합시켜보자. 반면에 아이가 지구의 표면에 대해 공부하였다가 하늘로 공부를 확대하였다면, 다시 지구의 지역들로 되돌아와서 그에게 처음에 시작한 자신의 가정을 알게 하는 것이다.”(Rousseau, 1991, 216)

그리고 루소는 지리학을 역사학과 더불어 직접적인 개인의 경험을 확대시키는 주요한 학문적 원천으로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김수동, 1997, 129), 지리는 지엽적인 지리학에서 확대시켜 나가야 하며, 지리적 사실의 직접적 관찰에 의해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관찰과 실행을 중요시 하면서 살고 있는 도시와 시골의 중간적 장소에서 이웃하는 강, 태양의 관찰과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그러한 방법의 예로서 제시한다.

“그의 지리는 그가 살고 있는 타운에서 시작할 것이며, 다음에 그의 아버지의 시골집, 그리고 그들 사이의 장소들, 그 근처의 하천, 그리고 태양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길을 찾는가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것이 만남의 장소이다. 그로 하여금 그 자신의 지도, 매우 간단한 지도를 만들게 하라. 처음에는 오직 두 개의 장소만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른 것들은 그들 간의 거리와 위치를 헤아릴 수 있을 때, 때때로 첨가될 것이다.” (Rousseau, 1991, 216; Mahony, 1988, 18-19)

또한 이를 통해 볼 때, 루소가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나아가며 외부지향적인 동심원적 발달을 통하여 귀납적 교육에 대한 Bacon의 입장을 재진술한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루소는 지리의 학습에서 직접적 경험을 하기 쉬운 향토지리 내지 고장의 지리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는 이를 통해 감각의 중요성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루소는 후대의 학교에서 인기있게 사용된 향토지역의 학습이라는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바로 아동중심 지리를 실천하였던 것이다(Bowen, 1981, 198). 이 학습에서 사용된 접근은 직접관찰접근(look-and-see approach)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Mahony, 1988, 18-19), 직접관찰접근은 이후에 페스탈로치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런데, 루소의 교육방법 및 지리교육방법의 핵심적 문제는 백과사전적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지적 호기심의 배양과 자발성이다(오인탁, 1998, 231). 그는 충분히 학습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을 때는 학습을 강요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으며, 오히려 학습할 지식의 유용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만드는 학습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그 예로서 학습의 자발성을 끌어내는 지리수업을 실시하고, 지리학습에서 시작하여 천문학의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몽므랑시 북쪽에 있는 숲의 위치를 관측하고 있었다. 그 때 그가 나를 가로막으며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하고 질문했다...이런 공부야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공부는 하지 않기로 하자... 그 날은 더 이상 지리공부에 대한 것은 중단하기로 했다...다음날 아침...산책하고 오자고 그에게 말을 꺼냈다...우리는 길을 잃는다...우리가 있는 지점을 알려고 해도, 아무런 단서가 없다...

장자끄 ...정오라...참 어제 바로 이 시각에 우리는 몽모랑시에서 숲의 위치를 관측했었지? 만약 어제처럼 숲에서 몽모랑시의 위치를 관측할 수 있다면...

에 밀 그렇군요. 하지만 어제는 우리에게 숲이 보였어요. 여기에서는 마을이 보이지 않잖아요.

장자끄 그러니까 곤란하지... 여기서 마을이 보이지 않아도, 마을의 위치를 알 수만 있다면 좋은데...

에 밀 참, 그렇군요!

장자끄 그래, 우리는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숲은... 에 밀 몽모랑시의 북쪽에 있다구요.

장자끄 그렇다면 몽모랑시는...

에 밀 숲의 남쪽에 있게 되지요.

장자끄 정오에 북쪽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나?

에 밀 예, 알고 있어요. 그림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알 수 있어요.

장자끄 그림, 남쪽은?

에 밀 남쪽은 어떻게 알지요?

장자끄 남쪽은 북쪽의 반대이지?

에 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림자의 반대 방향을 보면 돼요. 아아, 이 쪽이 남쪽이다. 확실히 남쪽이다! 몽모랑시는 이 쪽 방향에 있다. 이 쪽으로 가 보아요.

장자끄 그게 좋겠구나. 이 나무 숲 속의 오솔길로 가 보자.

에 밀 (손뼉을 탁 치면서 기쁜 듯이) 앗, 몽모랑 시가 보인다!(Rousseau, 1991, 231-232)

이 지리수업의 과정에서 보면, 루소가 보여주는 지리수업은 적어도 다음의 네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는 지리적 지식의 필요성 내지 유용성을 느끼는 상황을 만든 후 수업을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몽므랑시의 위치에 대한 지리공부를 현장답사와 경험중심의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셋째는 답을 주기보다 소크라테스의 산파식 교수법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아내도록 하고 있다. 넷째는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학습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2)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영향과 학교지리

루소의 교육사상을 실천하는 학교들은 범애학교(Philanthropium)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다. 범애학교의 범애주의(Philanthropism)은 인류애를 실현하는 교육, 공리공론보다는 실리에 중점을 두고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시민의 육성에 목적을 두었었으며, 범애학파는 계몽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루소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시대적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였다(차석기, 399).

특히 범애학파가 지리학사 및 지리교육사적 면에서 갖는 중요한 점은 범애주의 교육자인 Salzmann(1744-1811)과 Gutsmuths(1759-1837)가 함께 Gotha 지방의 Schenepfenthal에 세운 범애학교에서 위대한 지리학자인 Carl Ritter(1779-1859)가 길러졌다는 점이다.

범애학교에서는 루소의 『에밀』에서 제시한 자연주의적 방법과 원리를 응용하여 종래의 학습법을 지양하고 교수의 직관화, 유희화, 작업화가 시도되었다(김재만, 1983, 157). 교육의 내용은 다소 백과사전적이어서 근대어, 자연과학, 체육을 중심으로 하여 불어, 독어, 라틴어, 수학, 지리, 물리, 박물학, 음악, 체조, 무도, 회화 등이 주요 교과였다.

이를 통해보면, 코메니우스 이후의 자연주의 사상가인 루소에 있어서나 그들의 영향을 받아 범애학파에 있어서도 여전히 지리는 중요한 교과로서 인정되었으며, 그와 같은 교과로서의 인정은 그들이 강조한 유용성과 직관과 감각의 교육에의 적합성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애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바제도(J. B. Basedow: 1723-1790)에게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잘 나타난다. 그는 일반적으로 교수에서 실용을 강조하였으며, 교수는 되도록 실물로 하였으며 기억보다는 직관과 이해에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자연에 관한 관찰 및 실험에 의한 교수가 중시되었으며 지리의 교수에서도 직관을 사용하였으며, 역사를 지도하는데 있어서도 그림을 많이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한기연, 1983, 355).

바제도는 교육의 시기를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의 세가지 시기로 나누어 코메니우스와 유사하게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는데(한기연, 1983, 356), 지리

는 주로 산천지명, 도시 등을 다루는 것으로 유아기와 소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과로서 등장한다. Basedow에 있어서의 교과 선정의 기준도 코메니우스에서 처럼 유용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실학주의에 따라 직관과 감각, 실물교육이 가능한 교과들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본다면, 지리는 이와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는 교과였다.

## 3) 페스탈로치에 나타난 지리적 관심

지리는 페스탈로치가 고아를 위해 1798년 Stanz에 세운 학교에서부터 페스탈로치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였으며, 그것은 개인 실험과 관찰을 중심으로 하는 야외에서의 살아있는 지리였다(Mahony, 1988, 26). 이후 1799년에 페스탈로치는 Burgdorf에서민을 위한 초등학교를 시작하였고 1800년에는 시민을 위한 국민학교로 창설하였는데, 민중학교로 세운 이 Burgdorf의 학교에서도 지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페스탈로치는 이 학교에서 8-15세의 중학교 학생 남녀 60여명을 가르쳤는데, 이때 가르친 과목은 성서의 역사, 스위스의 지리, 산수, 쓰기, 라틴어의 초보 등이다(김정환, 1983, 123).

그리고 페스탈로치의 교육사상이 절정에서 꽃을 피운 이페르텐(Iferten 혹은 Yverdun) 학교에서도 지리는 가르쳐졌다. 이페르텐의 수업과목은 종교, 독어, 불어, 라틴어, 그리스어, 쓰기, 문법, 역사, 지리, 산수, 기하, 미술, 음악의 13개 과목이었으며, 그밖에 기악, 검술, 무용 등의 특별활동 과목이 있었다(김정환 역, 2000, 246).

특히 페스탈로치는 유아교육에서도 지리를 포함하였는데, 그의 유아교육의 내용(김정환, 1995, 155)은 인간교육의 기초가 되는 모든 교육의 기본을 담아 지·덕·체를 강조하는 전인교육을 하되 정서교육을 최우위를 차지하도록 하였다. 정서교육은 기독교의 핵심적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의 개념을 체험시킬 신앙공동체적 생활, 정서의 순화를 위한 미술, 음악 등이 주가 되었다. 페스탈로치는 지성교육의 내용으로서 추상적 능력을 키우는 수, 분석적 사고력을 키우는 형, 명석한 표현력을 키우는 언어의 교육이 주가 되도록 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창작의 기쁨을 맛보는 조형, 생활환경에 관심을 환기시키는 지리 등의 교육도 병행하였다.

페스탈로치의 유아교육에 대한 사상을 담고 있

는 유아교육서한은 모두 34통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4신은 미술, 조형 기하, 지리교육론을 담고 있다. 이 서한에서는 그는 지리를 “자신의 생활환경을 지도로 담아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김정환, 1995, 152), 다른 세 가지 분야와 함께 이 모두가 다 고유하고 독특한 교육의 몫을 제각기 차지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페스탈로치는 야외답사활동에 직접 참가했을 뿐만아니라 두 가지의 상이한 형태의 야외답사 실습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첫째는 루소가 보여주었던 어린 아동들을 위한 직접관찰접근(look-and-see approach)이고, 두 번째는 보다 성숙한 아동들을 위한 야외에서의 사실에 대한 증명이다(Mahony, 1988, 27). 그가 지리수업을 진행하였던 과정은 매우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당시 Vullemin이라는 학생은 Yverdun에서 페르탈로치에게서 배운 유년기의 지리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처음에는 지리의 기초를 공부하기 위하여 우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우리들은 뷔른강이 흐르는 이펠텐 부근의 인적이 드문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우리는 골짜기를 전면적으로(전체로도) 그리고 부분적으로 관찰하였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바르고 완전한 직관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각자는 골짜기의 한쪽에 층계를 이루어 매장되어 있는 반토(흙)를 파라고 했다(다음으로 우리 각자는 골짜기의 한쪽에 층을 이루고 있는 진흙 층을 파고서, 채취용의 종이에 싸서 그 흙을 채취하였다). 거기서 우리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가지고 온 큰 종이에 흙 한 뭉치를 쌓았다. 성으로 돌아오니 큰 책상 옆에 서게 하고 그 흙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각자는 그것을 받는 즉시 그 흙을 가지고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골짜기를 모조하라고 했다(학교로 돌아와 바로 거기에서 가져온 흙을 관찰하고 이를 가지고서 그 골짜기를 모사한 모형도를 만들도록 했다). 다음날은 한층 더 높은 산으로 소풍을 가서 새로운 답사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점차 우리들의 연구를 확대해갔다. 우리들은 이렇게 계속하여 마침내 이펠텐 분지를 연구해내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조감할 수 있는 몽테라의 고지로부터 관련적으로 개관하고 그리고 또 그것의 모형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지도를 배우고 그래서 처음으로 지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었다.”(김재만, 1983, 177-178; Mahony, 1988, 27)<sup>15)</sup>

이 페스탈로치의 지리수업에서는 관찰→직관→자료수집→지형 모사→관찰 확대→조감→지도 학습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로 경험을 매우 치밀하

게 계획하였던 것을 보여주는데, 학생의 감각을 이용한 관찰, 직관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경험을 점차 확대하여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한 다음 실물의 학습에서 대체물의 학습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시에 자연주의 교육가들에 의해 체험중심의, 경험중심의, 학생중심의 지리교수방법이 제시되고, 올바른 관념을 형성시키기 위해 관찰, 직관, 감각을 두루 활용하는 지리수업방법이 이론적으로 제시되고 실천되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당시에 영국에서 이른바 ‘cape and bay’(곶과 만)의 지리라고 하여 곶이나 만의 이름을 운문을 통해 외우게 하거나, 프랑스에서 문답식으로 학습기법이 주로 사용되었던 것(Graves, 1984, 67-68)에 비하면, 큰 대조를 이루는 수업방식이었다. 또한 20세기까지도 지리교수방법의 전형이 “곶과 만”의 방법이라고 하여 지명을 암기하는 것이었다는 점과 조금 발달한 것이 음악을 이용한 지명과 산물의 암기였다는 점을 놓고 볼 때, 페스탈로치의 지리교육은 방법과 실천의 측면에서 매우 앞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페스탈로치의 지리교육의 중심적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친근성의 원리에 따른 지리교수의 심리화이다. 그는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교육내용을 다루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는데 지평확대의 근거를 자연적 관계에서 찾았다. 김정환(1983, 221-231)은 페스탈로치 교육의 대요를 8가지로 정리하면서 이러한 원리를 지적한 바 있다. 페스탈로치는 교육이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생활권에서 비롯하여 점차로 확대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이 생활권을 ‘안방’이라는 확고한 중심점을 기축으로 하여 동심원적으로 확대시켜간다고 생각하였다. 그에 따르면 동심원의 첫째 층은 안정된 정서 도야를 맡는 가정이며, 둘째의 층은 자신의 능력, 형편, 처지에 알맞은 직업선택과 사회참여의 길을 훈련받는 학교이며, 셋째의 층은 동포감과 상호협동의 정신 및 시민적인 의무감을 도야하는 사회라고 생각했다. 그가 주장한 친근성의 원리는 지평확대, 동심원적 확대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이미 코메니우스가 제시한 교수의 원리에서 제시한 바 있다.

둘째, 이와 관련되어 페스탈로치는 향토지리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페스탈로치의 목적은 정신의 모든 능력과 기능의 조화로운 계발이었다. 교수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그는 지도, 지도첩, 그림, 프로파일과 모델의 사용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특히 생생한 일차적 인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교장에 대해 알아보는 것 그리고 개별 아동의 독립적인 다양한 활동을 자극할 것을 권장하였다(Linke, 1981, 104).

셋째는 도야 및 생활중심의 지리교수이다. 페스탈로치는 기초가 되는 과목을 철저하게 학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는 이러한 기초과목으로 논리적인 사고력을 훈련시키는 수학, 공간적인 감각을 도야시키는 도형학, 민족의 전통과 사상이 담긴 국어를 강조하면서 운명공동체에 대한 각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였다(김정환, 1983, 229). 그에 따르면 지리는 자연의 심성을 배우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국가애를 기르는데 매우 중요한 교과이다.

넷째, 직관과 감각의 지리교수를 강조하였다. 자연관찰과 답사중심의 지리교수는 중요한 방법이었다. 그는 실물의 교육이 언어보다 선행하며,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이 판단과 추리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스스로 사물을 찾고 발견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바로 활동주의, 직관주의, 자연주의, 개발주의의 방법이다(차석기, 1991, 423). 특히 그가 교육적 실천을 한 불그도르프(Burgdorf), 이페르텐(Iferten)에서 이를 강조하여 먼저 사물을 직관케하고 개념을 형성시켜 점차 진리로 이끌었다.

### 3. 자연주의 교육사상가들의 지리학자에 대한 영향: 리터의 경우

#### 1)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영향을 받은 범애학과 리터

범애학교는 계몽주의자들의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연주의 교육사상가이자 계몽주의자인 루소의 교육이념인 인류애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학교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리터는 저명한 범애주의자(philanthropist)인 찰즈만(Christian

Gotthilf Salzmann)이 Schnepfenthal에 세운 학교에서 6세에서 16세까지 교육을 받았다(Ritter, 1863, 14; Linke, 1981, 99; Beck, 1979, 20). 이 학교는 찰즈만이 범애학파의 창시자인 바제도(Basedow)가 1774년에 Dessau에서 창립한 범애학교에 참여하였던 경험을 살려 루소와 페스탈로치의 자연주의적 교육방법을 근거로 자신의 교육이론을 실현하기 위해 세운 학교였는데, 칼 리터가 이 학교에서 공부하였던 시기는 이후의 그의 삶과 과학적 저작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다(Livingstone, 1992, 140).

찰즈만은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관에서 보았던 실물교육과 직관교육을 통해 아동의 이해와 사고를 증진시키려고 하였는데(박의수 외, 1993, 228), 그는 교수의 출발은 실물의 관찰에 두었으며, 사물과 언어의 학습을 병행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자연적인 실물과 현장에 접근시켜 정확한 관찰을 통해 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개발하도록 주력할 수 있는 여행이나 야외학습을 권장하였고(차석기, 1991, 404-405), 그 자신도 학생들과 더불어 여행을 하면서 자연물, 하천, 산악, 삼림, 촌락, 경작상황, 생활양식 등을 보여주면서 가르치기도 하였다(손인수, 김동구, 1983, 105).

이러한 찰즈만의 교수방법은 근대이후 확립된 지리학 연구방법 및 지리교수방법의 하나인 현장답사교육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학생들로 하여금 관찰하게 하고 가르쳤던 위의 항목들은 하나같이 오늘날에도 중요한 지리적 연구주제나 답사주제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관찰중심의 지리교수의 방법이 틀을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교수방법은 리터가 훗날 유럽을 두루 여행하는데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찰과 추론에 의해 리터는 『Erdkunde』를 저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코메니우스에서 시작하는 감각을 중시하는 교수법과 한 단계 더 진보한 루소의 관찰과 경험중심의 지리교수법이 찰즈만에 있어서도 정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리터에게 직접 지리 과목을 가르친 사람은 지리학자이기도 한 범애주의 교육자인 구스무스(J. C. F. GutsMuths)였다. 그는 새로운 교수법에 따라 지리를 가르쳤으며 산책이나 긴 여행 중에 자연현상의 관찰을 강조하였다(Hartshorne, 51; Martin

and James, 1993, 126). GutsMuths는 지역사회 외에도 프랑크푸르트-마인 그리고 먼 장소에까지도 잦은 답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지리답사의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학교에서의 일상 교육은 학생들의 능력의 개발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도록 하였다(Linke, 1981, 99). 그리고 그는 교사와 학생간의 긴밀한 접촉속에서 진행되는 자극을 제공하는 개념중심의 학습을 강조하였다. 결국, 리터가 지리학과 지리의 교수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은 그가 학교다니던 때 배운 루소와 페스탈로치의 원리에서 자극을 받은 것으로 “야외에서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교과서를 통한 간접적인 학습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관찰과 학습을 유도한다”는 원리였다(Graves, 1984, 30)고 할 수 있다.

지리는 당시에 리터가 좋아하는 과목의 하나였으며, 이후에 역사학, 신학과 더불어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GutsMuths는 리터가 가진 지리에 대한 관심과 지도학적 재능을 믿은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는 “리터는 곧 모든 학생들 중에서 최고의 지도를 만들었으며, 언젠가 지리교수가 될 수 있을 강한 진보를 보였으며 그에게 그 교과(지리)를 가르치는 것이 기쁨이었다”고 리터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Beck, 1979, 21). 그리고 이후의 편지에서도 지리가 여전히 리터가 좋아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그는 미래에 이 영역에서 큰 성취를 할 수 있을 것이다”(Beck, 1979, 21)라고 리터의 지리에서의 성공가능성을 일찍이 예측하였다.

이처럼 쉬네펠탈(Schnepfenthal)의 범애헌교는 칼 리터에게 깊은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Beck(1979, 20)은 쉬네펠탈이 없이, 그리고 찰즈만의 세심한 구성작업이 없는 리터의 지리적 작업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암기 작업과 당시 지리 개설서에 나타나는 단순한 자료들을 쌓아놓는 것에 대한 비판, 그리고(그의 후기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비과학적인 그리고 죽은 지리학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열정적인 비판, 자연에서 신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노력,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 것이 이 시기로 추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그가 가졌던 이러한 개념들의 창고는 쉬네펠탈에서 형성되었으며, 나중에는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지리학으로 전이되고 실천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리터에게 쉬네펠탈은 소우주였는데, 전체 세계를 우주적 통합성으로 파악하는 방법 전부는 어린 시절에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그가 이 소우주에서 경험한 혼합된 통일성과 다양성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Ritter, 1863, 15). 결국 리터는 루소, 페스탈로치, 찰즈만, 구즈무스가 없이는 그러한 교육적 경험을 가질 수 없었으며(Martin and James, 1993, 126-127), 이들 덕분에 지리학자로서 그리고 지리교사로서 훌륭한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 2) 페스탈로치의 리터에 대한 영향

리터는 당시의 많은 저명한 학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들 학자 중에 리터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학자들로는 해부학자인 Sommering, 지리학자인 Ebel, 그리고 교육개혁의 선구자인 페스탈로치가 있다(Hartshorne, 1939, 51).

리터는 스위스 여행 중에서 페스탈로치의 학교를 방문하면서 페스탈로치의 깊은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는 1807년 9월 19일에서 26일 사이에는 페스탈로치의 이페르텐 학교에 머물렀고, 여기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Mieg, Engelmann 등의 친구들, 그리고 페스탈로치와 Niedere, Tobler를 비롯한 페스탈로치의 조력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Beck, 1979, 33). 이때 리터는 페스탈로치가 세상에 내보인 교육방법과 교육과정에 대해 토론하면서 그 방법을 이해하게 되는 매우 가치있는 시간을 가졌다(Ritter, 1863, 20). 이후에도 리터는 수차례 페스탈로치를 방문함으로써, 사상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교수법에 있어서도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당시 리터의 관심은 지리학에만 전적으로 제한된 것은 아니었으며, 교육적 질문도 계속 그의 주의를 끌었다.

사회 및 종교와 관련된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아, 페스탈로치는 방법의 자연성을 강조하였으며, 인류의 발전에서 자연의 과정에 대해서 탐구하였기 때문에, 사회개혁가로서 찰즈만보다 훨씬 강렬하게 영향력을 리터에게 주는 사람이었다(Beck, 1979, 35-36). 리터에게 범애헌주의자들이 즐거운 방식으로만 삶의 심각함에 대해 접근하는 것 같이 보였던 것에 비해, 페스탈로치는 인간내면의 세계질서에 대한 감각으로서 철학,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랑”과 “믿음”

위에 교육을 올려 놓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Beck은 페스탈로치가 리터에게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Beck, 1979, 36). 첫째, 페스탈로치가 옹호하는 철학 즉 내면의 철학에서 추구하였던 세계의 질서를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지리학의 기초로서, 지리학 문제의 새로운 정향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즉 리터는 페스탈로치의 방식대로 자연의 방법에 따라 지표를 탐구하여 자연과 인간간의 총체적 관계를 밝히려고 하였으며, 우주에서의 질서 또는 그 배후에 있는 목적을 인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인 인간의 생활을 통해서 신의 신성한 궁극적 목적을 발견하고자 하였다(Hartshorne, 1939, 65).

둘째, 찰스만의 쉬넨펜탈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모든 합리주의적 한계에서 벗어난 페스탈로치의 순수한 기독교정신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리터는 그 스스로 우주와 함께 일치하는 것을 느낀 후, 자연의 구조와 상응하는 내부의 존재를 발견하고, 자연의 내적구조에 따른 지리적 지식의 체계화와 종합화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특히 그는 후속적인 위대한 작업들을 통해 자연의 기본적인 의도와 조화를 파악하려함은 물론 이를 목적론적 자연관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물론 리터에 있어서 목적론적 우주관은 리터가 Herder를 통해서 Kant에게서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인간사회 현상과 여러 자연현상 사이의 통일성을 밝히는 지리학 방법론을 추구한 Humbolt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Hartshorne, 1939, 65). 그렇지만 리터에 있어서 지리학 연구의 목적이나 방법에서 페스탈로치의 영향이 매우 컸던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리터는 그의 지리학 방법론에서 페스탈로치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되는 바(옥성일, 1997), 리터는 페스탈로치에게서 특수한 것을 관찰, 비교하여 전체에 이르는 경험적 방법을 배웠고, 지표면의 다양한 현상을 완전히 묘사하는데 필요하였던 유형(type)이라는 아이디어를 배움으로써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리터는 스스로 “자연의 본성에 근거하여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발달해나가는” 페스탈로치의 방법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그는 그것을 자연이 너무나 오랫동안 무시되어온 지리에 적용시켰다(Mahony, 1988,

33)고 주장하였다. Ritter는 페스탈로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나는 그의 방법을 지리연구에 도입하기로 페스탈로치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을 굳게 결심하고서 Yverdun을 떠났다. 나는 이미 혼돈을 줄이고 질서를 찾았다. 나는 정신과 마음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지구에 대한 지식의 단서를 과거처럼 꼭 쥐고 있었다... 페스탈로치는 우리 초등학교의 한 학생보다 지리를 모른다. 그러나 내가 이 과학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얻은 것은 바로 그로부터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으로 자연적 방법의 아이디어를 인식하게 된 것은 그에게 귀를 기울였을 때였던 것이다. 나에게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은 바로 그이며, 나는 내 작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도 전적으로 그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면 즐거울 따름이다”(Mahony, 1988, 33)

지리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리터는 평소에 찰스만류의 새로운 교육방법을 실천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페스탈로치와의 접촉을 통하여 지리교육에 대한 두가지 중요한 아이디어를 확고하게 갖게 되었다(Unwin, 1992, 78). 하나는 교육은 인간의 본성이 의존하고있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관찰이 학습과정에서 중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리터는 이 두 가지를 자신의 지리적 저작 속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가장 중요하게도 그의 실제적 가르침 속에서도 이에 대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그는 페스탈로치와의 교류를 통하여 지도, 지도첩, 그림 그리고 학생들의 향토에 대한 상세한 학습에 기초한 학교 지리의 새로운 형태를 도입하는데 관심을 보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페스탈로치의 목적은 정신의 모든 능력과 기능의 조화로운 계발이었다. 교수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그는 지도, 지도첩, 그림, 프로파일과 모델의 사용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특히 생생한 일차적 인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장에 대해 알아보는 것 그리고 개별 아동의 독립적인 다양한 활동을 자극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러한 리터의 페스탈로치식의 지리교육에 대한 관심은 그의 제자인 A. Guyot에 연결되었으며, Guyot는 미국에 건너가 페스탈로치 식의 지리교육을 실천함으로써 미국 지리교육의 일대변혁을 가져왔다(옥성일, 1997, 50 참조).

리터가 지리교수 및 지리학의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려는 노력의 결실이 방대한 저작으로 나오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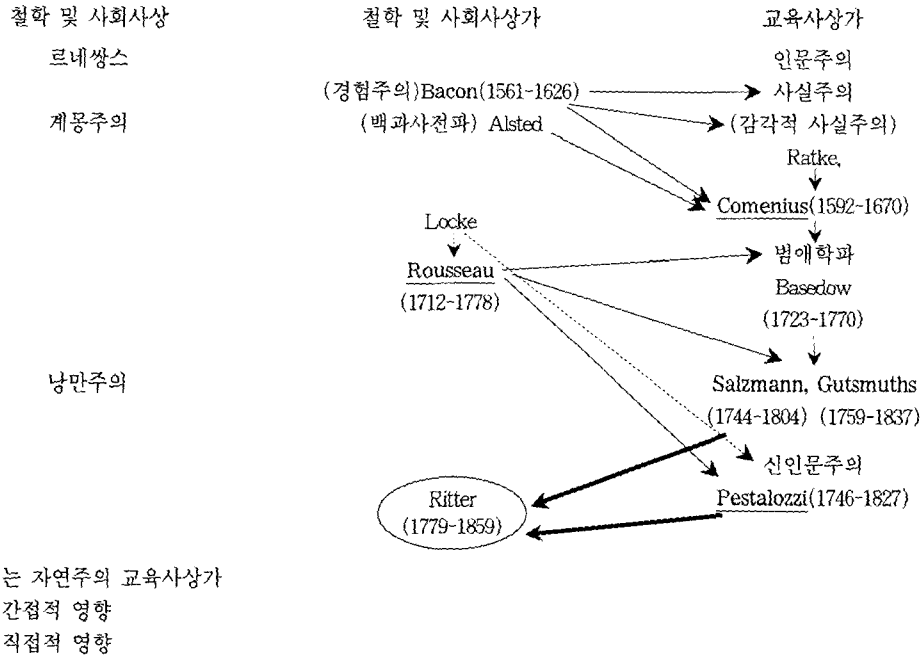


그림 2. 리터의 교육사상사적 계보

되는데, 그는 *Erdkunde: General Comparative Geography*의 제1권(아프리카 편)을 페스탈로치에게 헌정하였다(Mahony, 1988, 32). 리터의 지리학 활동 속에서 그의 목표는 페스탈로치가 만든 교수원리의 관점에서 훔볼트의 자연과학에 대한 접근법과 그 자신의 역사 및 지역지리의 개념을 결합시키는 것이었다(Linke, 1981, 104).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보면, 리터는 자연주의 교육사상가인 페스탈로치의 직접적인 영향과 루소에게서 감화를 받은 범애학파의 찰즈만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리고 루소와 페스탈로치는 사상적 근원으로 볼 때 모두 자연주의의 창시자인 코메니우스의 영향을 받았던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리터는 자연주의 교육사상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리터에게 영향을 미친 자연주의 교육사상가들을 교육사상사적 계보를 통해 정리해보면 그림 2와 같다.

#### 4. 결론

본고는 자연주의 교육사조의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Comenius, Rousseau, Pestalozzi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에 있어서 지리적 관심 및 지리교육의 방법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주의 교육사조가 지리교육 및 지리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자연주의 교육사상은 근대교육에 대한 이념과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면서 근대교육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들이 제시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 지리는 일정한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자연주의 교육사상가들의 지리학 및 지리 교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였던 지리교육의 방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코메니우스에 있어서 지리학은 지구의 회전, 지구표면을 경도와 위도중심으로 설명하여 지구의 속성과 형상을 다루는 Ptolemy의 지리학과 산, 계곡, 평원, 강, 대양, 섬과 같은 요소별로 기술하는 Strabo의 지역기술적 지리학을 혼합한 형태의 것이며, 지리학은 유용성을 갖추고 인간생활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지리 교과는 인간생활의 실제적이며 건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과학의 일부로서 범지리학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이 탐구하여 배워야 할

지식이었다.

루소는 지리학을 역사학과 더불어 직접적인 개인의 경험을 확대시키는 주요한 학문적 원천으로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리는 지엽적인 지리학에서 확대시켜 나가야 하며 지리적 사실의 직접적 관찰에 의해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리교육의 방법에서는 감각과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노작 중심의 지리교육, 분석과 종합을 동시에 사용하는 지리교육 향토지역의 학습, 직접관찰접근(look-and-see approach)에 의한 아동 지리의 실천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방법론은 페스탈로치에 의해 그대로 계승되었다.

페스탈로치는 지리를 생활환경에 관심을 환기시키는 교과로 생각하였으며, 올바른 관념을 형성시키기 위해 관찰, 직관, 감각을 두루 활용하는 체험 중심의, 경험 중심의, 학생 중심의 지리교수방법을 실천하였다. 그는 직접 야외답사활동에 직접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루소가 보여주었던 어린 아동들을 위한 직접관찰접근(look-and-see approach)을 실천하고 야외에서의 사실 증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연주의 교육사상가들의 지리학 및 지리 교수방법에 대한 사고들은 위대한 지리학자인 리터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리터는 그의 지리학 활동 속에서 페스탈로치가 만든 교수원리의 관점을 기저에 두고 훔볼트의 자연과학에 대한 접근법과 그 자신의 역사 및 지역지리의 개념을 결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주의 교육사조와 사상가들은 지리학자의 육성과 지리교육에서의 지리교수방법의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 註

- 1) 17세기에 근대 세계가 형성되는 변화의 시기에 시대의 혼란과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수학운동(Didaktische Bewegung)을 전개한 대표적 인물로서 무려 200여편의 저술을 남겼으며 유럽전역을 무대로 교육개혁운동을 전개하여, 달타이는 그를 인류 역사가 낳은 위대한 교육학적 천재중의 한사람이라 하였다.
- 2) 특히 그는 교수-학습 방법에서 자연주의 원리들을 제시하였는데, 그의 저서인 『대교수학』의 16장에서 자연의 방법에 따른 원리를, 17장에서는 교수-학습을 쉽게하는

자연의 원리를, 18장에서는 교수-학습의 철저성의 자연의 원리를 상세하게 진술하였다(Comenius, 1987, 120-170).

- 3) 코메니우스는 실체를 전체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학문을 감각적인 것을 다루는 자연학, 지적인 것을 다루는 형이상학, 영적인 것을 다루는 형이상학(hyperphysica)으로 나누고 이 세가지의 영역을 하나의 전체로서 연구하는 것을 범지학이라고 하였다(오춘희, 1997, 37).
- 4) 이 지도와 관련하여 Sebor는 다음과 같이 평했다."코메니우스는 뛰어난 지도학자이다. 그는 심볼의 선택에서 정확하였으며, 그의 지도는 자료나 글자들로 복잡하지 않았다. 그의 지도들은 해독가능한 것이었으며 그의 범례는 지도 내용과 잘 맞는 것이었다. 그는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근대지리학이 강조하고 있는 "지도없이 지구에 대한 연구는 없다"는 것을 잘 제시하고 있다"(Sebor, 1972, 90-91).
- 5) 그의 이러한 생각은 다음의 표현에서 잘 나타난다. "언어학자, 철학자, 신학자, 의학자들이 지리학자들과 같은 작업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지리학자들은 지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지방, 여러 왕국, 세계의 여러 구분을 지도로 나타내어, 대양과 땅의 큰 넓이를 작은 축척으로 그려내기 때문에 한 눈에 다 들어오게 만든다"(Comenius, 1987, 303).
- 6) 이에 대해 Graves(1984, 63)는 "코메니우스는 오늘날의 환경연구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영역을 지리학이라고 소개하였으며, 아동들은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그 주변환경에 대해 학습하며, 또한 지구의 형상, 지구의 구분, 대양, 바다와 바닷물의 이동 등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라고 논평하였지만, 본문을 통해 볼 때 이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7) 코메니우스는 이 책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쓴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서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리인 "감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지성에서 지각될 수 없다"(감각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원리를 지식의 출발점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우선 감각기관을 활용해 지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이 책에 적용하였다(Comenius, 1999, 191).
- 8) 그림 1은 영어와 라틴어의 2개의 언어로 된 1659년 영어판이다.
- 9) "도시의 안쪽에는 돌을 깔아놓은 넓은 길, 시장과 골목길이 있습니다. 공공건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 교회, 학교, 시청, 거대소, 성벽과 문 옆에는 병기고, 곡식창고, 숙박소와 선술집, 극장, 병원, 깊은 곳에 하수도랑과 감옥이 있습니다. 주요한 탑에는 시계와 감시하는 오두막이 있고 길에는 우물이 있습니다. 강이나 작은 강이 도시 사이를 흘러 오물을 씻어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탑은 도시의 가장 높은 장소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Comenius, 1999, 145).
- 10) 당시에 Cosmography라는 용어의 사용은, 종종 Geography와 상호교환하여 사용되었을 지라도, Munster의 경우에 서처럼 종교적인 강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Apian의 경우처럼 천문학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Bowen, 1981, 34).
- 11) 1540년에 새로운 판의 Ptolemy가 Sebastian Munster에 의해 출판되었다. 그의 1544년의 *Cosmographiae Universalis*는 여러 가지 판으로 출판되었으며, 1세기 이상동안에 하나의 표준적인 텍스트로 남았다. 그의 *Cosmographia*는 많은 지도를 포함하고 있었다.(Bowen, 1981, 34), Sebastian Münster는 발견의 항해이후로 출판된 초기의 지리서인 *Cosmography*라는 가장 인상적인 책을 1544년에 썼다. 그의 사후에 이 책은 독일에서 매우 영향력있는 것이었고 일세기 이상동안 유럽의 많은 다른 곳에서도 정말 영향력이 있었던 책이었다(Glacken, 1967, 363). 그의 책은 백년동안 무려 44판이나 나왔을 정도로 유명하다.
  - 12) 그가 쓴 "일반지리에 대한 입문"(introductio in unversam geographiam)은 라틴어로 쓰여진 것인데 그가 죽은 뒤 2년 후에 네덜란드의 Elzevier에 의해 출판되었다. 명백히 Münster의 *Cosmography*의 전통속에서 출판되었지만, 이것은 당시대를 통해 표준적인 저서업적으로 남았는데, 다음 100년 동안 몇 개국에서 30판이상의 라틴어로 출판되었으며, 1631년에는 프랑스어로, 1657년에 영어로, 1678년 독일어로 출판되었다.
  - 13) 루소의 사상이 지리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해서는 Bowen(1981, 198-199)의 것을 일부 참조할 수 있다.
  - 14) 자연주의 교육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노작교육이다. 현대교육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노작교육은 루소의 사상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작교육은 노동(행위)을 통해서 창조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노동(행위)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김수동, 1997, 77).
  - 15) 이 글은 김재만이 일본의 페스탈로치 전집(長田新 역, 1959, *ペスタロッチ 傳*, 第四卷, 平凡社)에서 인용한 것이다.

## 文 獻

강선보, 2002, "코메니우스의 교육과정론." *교육철학*, 27, 1-17.

권용우 · 안영진, 2001, *지리학사*, 한울 아카데미.

김수동, 1997,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 문음사.

김재만, 1983, *교육사조사*, 교육과학사.

김정환, 1983, *페스탈로치의 생애와 사상*, 박영사.

김정환, 1987, *교육철학*, 박영사.

김정환, 1995, *페스탈로치의 교육철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김정환 외 역, 1991, *페스탈로치의 실천, 젊은날*.

박익수 외 3인, 1993, *교육의 역사와 철학*, 동문사.

손인수 · 김동구, 1983, *교육사 · 교육철학*, 문음사.

안인희(편), 1991, *교육고전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안인희, 1990, *에밀-루소의 교육론*, 양서원.

오인탁, 1998, "루소," *연세대학교 교육철학연구회* 편, *위대한 교육사상가들 II*, 교육과학사.

오춘희, 1998, "코메니우스," *연세대학교 교육철학연구회* 편, *위대한 교육사상가들 II*, 교육과학사.

옥성일, 1997, "낭만주의적 자연관과 지리적 환경론의 정립 -리터와 기요의 지리학 연구를 중심으로-," *지리교육론집*, 37, 33-55.

이숙중, 1996,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 교육과학사.

이희연, 1991, *지리학사*, 법문사.

주영홍, 2003, *자연주의 교육사상*, 학지사.

주영홍, 1990, *낭만적 자연주의 교육이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차석기, 1991, *교육사 교육철학*, 집문당.

하정숙, 1987, *Rousseau의 교육사상 연구*, 학민사.

한기연, 1983, *교육사*, 법문사.

Comenius, J. A.(정확실 역), 1991, *대교수학*, 교육과학사.

Comenius, J. A.(이숙중 역), 1992, *분석교수학*, 대한교과서주식회사.

Comenius, J. A.(이숙중 감수), 1999, *세계최초의 그림교과서*, 씨앗을뿌리는 사람.

Graves, N. J. 저(이희연 역), 1884, *지리교육학개론*, 교학연구사.

Pestalozzi, H.(김정환 역), 2000, *숨은이의 저녁노을*, 박영사.

Rousseau, J. J.(민희식 역), 1991, *에밀*, 육문사.

Beck, Hanno, 1979, *Carl Ritter Genius of Geography: On his Life and Work*, Dietrich Reimer Verlag, Berlin.

Bowen, Margarita, 1981, *Empiricism and Geographical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Dunbar, Gary S., 1983, *The History of Geography*, Udena Publication, Malibu, USA.

Ritter, Carl(translated by, William Leonard Gage), 1863, *Geographical Studies*, Van Antwerp, Bragg & Co, Cincinnati and New York.

Glacken, Clarence J., 1967, *Traces on the Rhodian Sho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Hartshorne, Richard, 1939, *The Nature of Geography*,

- The Association of America Geographer.
- Linke, Max, 1981, Carl Ritter(1779-1859), in T. W. Freeman(ed.), *Geographers Biobibliographical Studies*, 5, Mansell Publishing Limited, London, 99-108.
- Livingstone, David N., 1992, *The Geographical Tradition*, Blackwell Publishers.
- Mahony, Kieran O., 1988, *Geography and Education: Through the Souls of Our Feet*, Educare Press, Seattle: USA.
- Marsden, W. E.(ed.), 1980, *Historical Perspectives on Geographical Education*,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Commission on Geographical Education.
- Martin, Geoffrey J., and Preston E. James, 1993, *All Possible World*, 3rd ed., John Wiley and Sons, Inc.
- Muessig, Raymond H., 1987, An Analysis of Developments in Geographic Education,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87(3), The University of Chicago, 519-530.
- Murphy, Daniel, 1995, *Comenius: A Critical Reassessment of His Life and Work*, Irish Academic Press, Dublin.
- Sauer, Carl, 1951, Carl Ritter, in E. R. A. Seligman (ed.),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13, Macmillan, London, 395.
- Sebor, Milos M., 1972, Comenian Pansophia: geographic comments, in Vratislave Busek (translated by Kaca Polackova), *Comenius*, Czechoslovak Society of Arts and Sciences in America Inc., 87-92.
- Silber, Kate, 1976, *Pestalozzi: The Man and His Work*, Routledge and Kegan Paul.
- Stoddart, D. R., 1986, *On Geography and Its History*, Basil Blackwell.
- Unwin, Tim, 1992, *The Place of Geography*, Longman Scientific and Technical, New York.

최초투고일 03. 09. 04

최종접수일 03. 11. 25